

마음이 세상을 유지해가고  
마음이 세상을 이끌고 있다.  
그 마음이 한 법이 되어  
세상을 능히 제어하느니라  
-잡아함경-

# 현대불교

佛事 전념 30년  
불교미술전시관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02)733-4800 http://www.buddha.co.kr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11월 8일 수요일 (주간) 제 293호

## 자기를 바로 분사다



올해 불교시민단체들의 주요한 화두는 '통일' '달라이 라마 방한' '지리산법' 등이었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와 좋은벗들 등 통일관련 단체들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지속하면서 교계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다.  
달라이 라마 방한준비위원회는 티베트불교와 달라이 라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타종교단체와의 연대활동으로 인종·문화차이에 대한 불교적 지평을 넓혔다.  
지리산살리기국민행

## 불교 시민운동

통일·인권·환경 영역확대  
종사자 전문성 강화 과제  
등은 지역환경운동에 불교계 등 종교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최근의 불교 시민운동은 전반적으로 통일·인권·환경에 대한 관심영역을 확대시키면서 타종교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을 강화하는 등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불교 통일운동이 전문가 부재와 대북성구 단일화 및 단체인 역할분담 등의 과제를 남겼듯이 불교 시민운동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일부 불교단체 종사자들의 전문성 부재와 활동가 부족, 스님과 사찰에 의존한 재정난과 일약한 근무조건, 업무량 폭주 등에 따른 의욕 저하 등 만성적인 개선점이 산적해 있다는 것.  
최근 불교단체들이 조계종 중앙총회에 상정할 '불교시민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가칭)안을 마련한 것도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불교시민사회기금(통일기금 등) 설치, 불교시민사회육성위원회 설치, 단체 종사자 교육 및 복지대책, 사찰 기금출연 및 지원에 따른 분담금 감면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불교NGO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불교계도 NGO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한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nia.com)

사이버 세계의 장경각! 책방 서사야문  
www.yosiamun.com  
국립현대미술관서점 **서사야문** 닷컴  
Tel: 02) 737-0695 Fax: 02) 737-0696

# 교과서 불교서술 오류 많다

## 조계종 포교원 2년여 검토... 편향·왜곡 항목 교육부에 시정요청

청소년들의 의식과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중·고교 교과서 내의 불교관련 내용이 오류투성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계종포교원 교과서연구위원회(이하 '교과서 연구위')가 초·중·고 교과서 중 불교관련 내용의 편향·왜곡사례 시정을 위해 98년 4월부터 2년여 작업 끝에 3일 완료한 보고서에 따르면, 불교관련 검토항목 131곳 중 시정해야 할 부분이 39항목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반적으로 종교편향적인 서술 방식과, 특히 청소년들의 인성형성에 바탕이 되는 도덕과 윤리교과서에서의 오류가 중·고교 공히 50%를 상회하고 있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기사 9면>  
불교의 시원을 알리는 불기(佛紀, 기원전 6세기)가 기원전 5세기로 잘못되어 있고, 교과서마다 불교용어에 대한 설명이 다르다는 점, 또 석가모니, 깨달음, 불교, 불도 라는 용어가 '불타'라는 말로 통칭된 점도 시정해야 할 점으로 나타났다.  
도덕(윤리)교과서의 경우 종교형평성이라는 이름아래 1900년간 민족문화 형성에 기여한 불교관련내용이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외래종교와 같은 본질로 다루지고 있었다. 또 종교교를 받는 이유가 절대자를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과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신론의 입장을 종교의 특성으로 서술하고 있었다. 바람직한 종교활동을 예로 든 경우도, 참다운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기독교 청년이, 배타적인 불교신자 어머니와 갈등을 겪는다는 내용으로 기술돼 자칫 청소년들에게 '불교는 융지못하다'는 왜곡된 사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냈다.  
국가교과서도 '선종·교종' '화엄사상' 등 그 시대 불교사상의 수용을 정치적 맥락으로만 해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교교의를 지나치게 신비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불교가 현실과 동떨어진 종교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반면 서양의 종교는 직업과 시민윤리의 표본으로 묘사하면서 현대사회를 이끌고 있는 원리로 기술하고 있다.  
포교원장 정영진님은 "교과서의 오류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미치는 해악은 매우 크다며 '내용의 부실, 오해의 소지, 그리고 왜곡된 부분을 분류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에 공식적인 시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7차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쓰일 교과서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포교원은 앞으로 내용을 더욱 보완하여 교과서 불교 지침서 발간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nia.com)

## 조계종 총회의장 지하스님

### 부익장에 청화·명진스님



조계종 12대 중앙총회 후반기를 이끌 의장에 지하스님(시진), 수석부의장에 청화스님, 차석부의장에 명진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관련 기사 3면>  
2일 열린 148회 조계종 정기총회는 이날 7개 상임부과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부과위원장을 배정했다. △총무부과위원장 정우 △교육부과위원장 황경 △교과부과위원장 장국 △사화분과위원장 최병 △재정분과위원장 지승 △호법분과위원장 정남.  
15일의 회기가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인도지원 추진 △종교개혁 및 통일 재·개정 △조계사신원 금융사고 조사특위

구성 △동국학원 조사특위 구성 △중앙승가대 조사특위 구성 △불기 2545년 중앙총무기안 예산 승인 등 17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새 총회의장 지하스님은 40년 경복 울진에서 태어나 60년 법주사에서 득도 70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법주사 승가대학 사교과와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했다. 사실상, 쌍계사 주지와 9대 중앙총회 부의장, 중앙승가대 총장을 역임했다. 정성운 기자

## "통일토론회 열 개최 어렵다"

### 조불련, 종단협에 통보

남북불교도 통일토론회의 열 개최가 어렵게 됐다.  
북한의 조선불교연맹(조불련)은 지난 27일자로 종단협(조계종)에 보낸 팩스를 통해 "수차례의 토의 끝에 금년중으로는 사정에 의하여 토론회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하며, 다음 해에 가서 서로 연계를 가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것을 알려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불련은 "이 문제(통일토론회) 외에 우리와의 베이징 접촉이 꼭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알려졌다.  
조불련은 또 "귀족(종단협의회)에서 화를자중차와 생활필수품을 10월 안으로 우리에게 보내겠다는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불련의 통일토론회 개최 불가에 대해 북한전문가들은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북미관계, 정부당국 차원의 남북교류에 치중하느라 여력이 없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성운 기자



간절한 母情佛心 15일에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3일 도선사에서 수행생 학부모들이 간절한 열원을 담아 작성한 기도문을 올리고 있다. 수행생들이 가까이 오면서 전국 대부분 사찰에는 자녀의 합격을 기원하는 부모들의 물품이 모이지고 있다. 도선사=고영배기자

## "달라이라마 방한 내년 재검토"

### 외교통상부 공식발표

외교통상부는 10월 30일 달라이 라마의 11월 방한을 불허하되, 내년 중 이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이남수 대변인 명의의 발표를 통해 "금년에는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내년에는 방한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선영 중국주재 한국대사도 10월 31일 중국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실시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달라이 라마의 방한에 대해 "한·중 인식 차이와 외교적 마찰을 줄이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해 의견 접근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인도 다람살라에 소재한 티베트 망명정부도 10월 30일 유감의 뜻을 표하고, "한국정부의 결정은 취소라기보다는 연기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내년에 방한이 성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3면>  
김재경 기자

## 핸드폰에 불교 담았다

### 019 이어 017도 불교정보 서비스

본사, LG텔레콤·신세기통신 제휴... 프리즘社 개발  
불교계 정보서비스 사업을 주도해 온 현대불교 신문사(주)LG텔레콤 및 신세기통신과 손잡고 무선인터넷 불교정보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10월 19일 019 서비스에 이어 11월 2일부터 017로도 다양한 불교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무선인터넷 솔루션 개발업체 프리즘정보시스템(주)의 연호사 개발에 착수해 완성한 불교정보 서비스는 핸드폰을 통해 불교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로 구축됐습니다. 본사는 이, 017 서비스에 이어 더 많은 무선통신망과의 제휴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접속방법  
017 무선인터넷에 접속, Info Touch의 종교메뉴에서 불교정보 선택  
019 무선인터넷 초기화면(메인)의 정보, 커뮤니티 메뉴 중 7번의 건강·공공에서 종교를 선택해 2번 불교정보 선택  
● 불교정보 WAP 서비스 내용  
△일일법: 뉴스 메뉴에서는 매일법회의 불교관련 뉴스와 법회 및 행사, 주간 할 이슈 등을, 일일법에는 각 종단과 사찰 단체들의 최근 정보를 공지사항에는 서비스 운영자가 사용자들에게 알리는 사항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인 전자: 공인정보의 정식 정보를 나누어 제공하며 상세한 일일법과 내용은 물론 주최측의 연락처 및 공연 전시의 특징들을 소개합니다.  
△상구보리: 법문에서는 현대 불교 승들의 법어를, 법을 듣는이에게는 한마음한탄 대령 스님의 신명산담 내용을 만날 수 있으며, 또 법문을 통해서 귀감과 감명을 주는 명구들을 전해 줍니다.  
△미음의 양식: 불교 책방에서는 베스트 불서와 화해의 책을 검색해 볼 수 있으며 불교관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불교정보검색: 기초용어사전과 불교관련 인물에 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사찰 안내: 전통사찰과 일반 사찰은 물론 해외 한국 사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불교여행: 계절, 대외방, 법구와 문예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어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추후 불교를 소재로 하는 게임방, 퀴즈이벤트 등의 서비스도 할 계획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

# 가야산 법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 만을  
생각합니다.

장인 정신

鐘宗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